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5. 5.

CEPA Insight

-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한국 25% 인도네시아 32% 베트남 46% 부과
- 인니 진출 기업 "관세 불확실성에 주문 줄고 선적 보류"
- '자카르타 GBC' 개소...14번째 오프라인 수출 거점
- 식약청 로고 위조 방지 신기술 적용한다
- 한경협, 인도네시아서 대규모 경제사절단 가동

■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한국 25% 인도네시아 32% 베트남 46% 부과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주도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46%), 중국(34%), 일본(24%), 인도네시아(32%) 등이 대상이며, 유럽연합, 대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한국은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수출 중심 경제체제에 큰 타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천278억 달러로 10.4%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4. 3.)

■ 인니 진출 기업 “관세 불확실성에 주문 줄고 선적 보류”... 팀 코리아 활로 모색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TRA, 현지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32%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류 및 신발 업계는 미국에서 주문량 감소와 선적 보류 요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업체들은 비관세 장벽 축소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고, 코참은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박수덕 대사 대리는 “팀 코리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같은 경쟁국들은 이미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4. 15.)

■ ‘자카르타 GBC’ 개소...14번째 오프라인 수출 거점

- 자카르타 GBC, 허브 사무소로 정식 개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허브 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GBC로 시작한 자카르타 사무소는 이번에 오프라인 허브 GBC로 전환되며 역할이 확대됐다. 이번 개소로 자카르타 GBC는 전 세계 14개국 19곳 중 14번째 허브 GBC가 됐다. 자카르타 중심 수디르만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통관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하며, 바이어 매칭,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과원은 자카르타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장 정보 공유 및 물류 협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자카르타 GBC는 2억8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4. 23.)

■ 식약청 로고 위조 방지 신기술 적용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최근 반튼 지역에서 발생한 Minyakita 브랜드 식용유 제품의 로

고 위조 사례와 관련하여, 제품 포장 보안 메커니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구르다프 브랜드 제품이 Minyakita 브랜드로 위장되어 판매된 것으로, 포장에 순증량 정보가 없고 위조된 로고와 SNI 라벨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BPOM은 이와 같은 위조 행위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인쇄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바코드와 QR 코드를 제품 포장에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BPOM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진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BPOM은 유통 제품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위조 행위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기관은 소비자 보호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3. 26.)

■ 한경협, 인도네시아서 대규모 경제사절단 가동 “Rp30조 추가 투자 계획”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이 28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첫 공식 교류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성김 현대차 사장, SK플라즈마 김승주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현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고위급 기업인 24인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밝히고, 롯데케미칼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라인(LINE) 프로젝트’에 국부펀드 투자도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270조 루피아(약 23조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30조 루피아의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사절단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며, 고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도 요구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4. 28.)



(출처 : 한인포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32%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 4. 3.



(출처 : 한인포스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사무소를 개소.

2025.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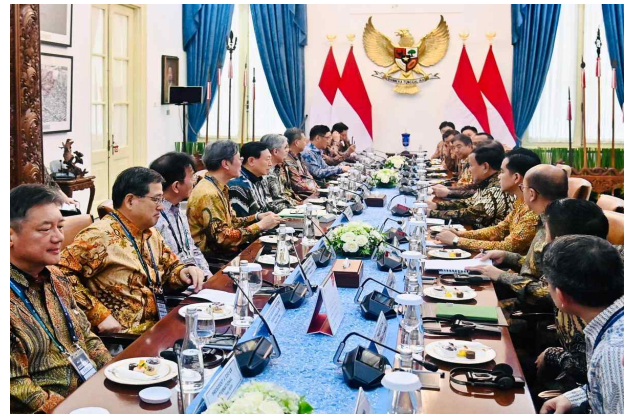


(출처 : 한인포스트)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기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2025. 4. 15.



(출처 : 한인포스트)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만난 한경협 경제사절단.

[사진 :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2025. 4. 28.